

일본 외무성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월까지, 프랑스 국립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 중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발행된 지도에서 일본해 해역에 관한 명칭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본해 해역에 관해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지도는 407점이었다. 그 중 61.2%에 해당하는 249점이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었으며, 조선해라고 표기한 고지도는 14.7%에 해당하는 60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에 조사한 지도 중, 19세기 전반에 발행된 지도의 90.0%에 해당하는 99점이, 19세기 후반에 발행된 지도의 100%에 해당하는 105점 전부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19세기 초엽부터 이미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 정착되어 왔다”라는 일본국의 주장이 재확인되었다.

### 1. 조사 목적

- (1) 일본국은 [일본해]라는 호칭이 정당한 호칭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 주요 논거로서 아래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 (가) [일본해]라는 호칭이 현재,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점.
  - (나) [일본해]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도 19세기 초엽부터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서 정착되어 있었다는 점.
  - (다) [일본해]라는 명칭이 지리적 명명법으로도 타당하다는 점.
- (2) 상기 (나)에 관한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는 일본 국토 지리원 연구자 2명이 유럽에서 발행된 200점 이상의 고지도를 조사한 결과, 18세기 말엽까지는 이 해역에 대해 [중국해], [동양해], [조선해], [일본해]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세기 초엽부터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를 중심으로 [일본해]라는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주 1). 또한, 외무성이 실시한 대영 도서관 및 캠브리지 대학 소장 고지도 조사에서도 이상의 사실이 확인되었다(주 2).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는 19세기 초엽부터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엽에 걸쳐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의 탐험가가 일본해 주변을 탐험하여, 일본해가 일본 열도에 의해서 태평양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하는 지리적 형상이 밝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견해는 많은 연구자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 주 1: 일본 외무성 작성 [일본해] 팜플렛 참조  
주 2: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대영 도서관 및 캠브리지 대학 소장 지도에 관한 조사” 참조
- (3)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해]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주 1),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양인은 이 해역에 대해서, *Sea of Korea, Sea of Josen, Eastern Sea, Oriental Sea, Sea of China, Sea of Japan*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에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한국에 관해 언급한 명칭을 사용한 지도가 가장 많았다”라고 주장하며(주 2) 이에 관한 근거로서, 한국측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프랑스 국립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조사를 들고 있다. 한국 측 조사에 의하면,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발행된 고지도 515점을 조사한 결과, 일본해 주변해역에 관한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지도는 115 점이었으며, 그 중 62%에 해당하는 71 점 [조선해(Mer de Coree)] 또는 [동해(Mer Orientale)]로 표기하고 있었고, [일본해(Mer du Japon)]라고 표기한 고지도는 19%에 해당하는 22 점이었다고 되어 있다(주 3). 그러나 한국 측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가)한국 측 조사에서는 [Mer du Orientale]를 [동해]로 간주하고 있으나, [Oriental]이라는 명칭은 [Occidental]에 대한 반의어로써, 단순한 방위를 나타내는 “East”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Mer du Orientale]는 [동양해]로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한국 측은 16 세기부터 19 세기에 걸쳐 발행된 지도들을 조사한 후, [일본해]라는 명칭보다는 [조선해] 또는 [동해]로 기재한 지도가 많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해 해역에 관한 명칭을 고찰할 때에는 각 연대별로 어떠한 명칭이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어떻게 정착되어 왔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다)한국 측의 조사는 각 지도에 대한 자료(발행 연대, 지도의 명칭, 바다의 명칭에 관한 표기, 서가 번호, 발행국 등)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 조사 결과가 정확한 것인지를 검증할 수 없었다.

(4) 일본 외무성은 [일본해]라는 명칭이, 19 세기 초엽부터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 정착되어 왔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한국 측 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랑스 국립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에 대해 일본해 해역에 관한 명칭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주 1: Lee Ki-suk, Kim Shin, Soh Jung-chul, “East Sea in World Maps”, The Society for East Sea, (Seoul: 2002) pp95-112

주 2: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of the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EAST SEA The Name EAST SEA Used for Two Millennia”, (Republic of Korea: April 2003) pp. 4-11

주 3: 조선일보 2003년 3월 11일, 중앙일보 2003년 3월 11일

## 2. 조사 개요 및 결과

### (1) 조사 개요

일본 외무성은 프랑스 국립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에 대해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이하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본 조사는 재프랑스 일본 대사관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조사원을 파견해 소장품 목록 등을 활용하여, 16 세기부터 19 세기 사이에 발행된 지도 중, 일본해 주변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도들을 검색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일본에서 발행된 것과 확실히 지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그림엽서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주 1)

(나)상기 리스트에 해당하는 지도를 실제로 열람하여 일본해에 관한 기재 상황을 확인하였다.

(다)일본해 해역의 바다 명칭에 관해 발행 연대별 통계표를 작성하였다.

(라)열람한 지도의 복사를 입수하였다.

### (2) 조사 결과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프랑스 국립 도서관이 소장하는 지도 중에서 상기(1)(가)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도는 1,495 점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407 점 일본해 해역에 관한 바다 명칭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주 2).

(나)407 점 중, 발행국의 언어로 [일본해](Sea of Japan, Mer du Japon 등)라고 기재한 지도는 249 점이었으며, [조선해](Sea of Korea, Gulf of Corea, Mer de Coree 등)라고 기재한 지도는 60 점이였다. [동양해](Mer Orientale, Oriental Sea 등)라고 기재한 지도가 32 점, [일본해·조선해]로 표기된 지도는 3 점이였으며, [일본해·동양해]로 표기된 지도 2 점, [동양해·조선해]로 표기된 지도가 6 점이였다. 또한, 상기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지도가 56 점 있었다. 덧붙여서 [동해](East Sea)라고 기재한 지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주 3) (리스트: 별첨)

(다)19 세기 전반에 발행된 지도에서는 전체의 90.0%에 해당하는 99 점이, 19 세기 후반에 발행된 지도에서는 100%에 해당하는 105 점이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라)상기 407 점의 발행국은 프랑스 262 점, 네델란드 41 점, 독일 34 점, 영국 17 점, 미국 9 점, 이탈리아 및 러시아 각 8 점, 중국 3 점, 오스트리아 및 스페인 2 점, 아르메니아, 인도, 카타르니아, 캐나다 및 포르투갈이 각 1 점, 프랑스·네델란드 5 점, 프랑스·독일 및 독일·네델란드가 각 1 점이였으며, 9 점은 발행국이 불명확했다.

(마)조사 결과를 지도 발행 연대별로 나타내면, 표 1 및 그래프 1 과 같다(주 8). 또한,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대해 실시한 일본 측 조사와 한국 측 조사의 차이를 도식화하면 그래프 2 와 같다.

주 1: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를 조사함에 있어서, 먼저 ‘일본’, ‘아시아’, ‘조선’을 키워드로 인터넷 카탈로그 검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카탈로그에 등록되지 않은 지도도 있으므로, 서가 목록을 검색하여 일본해 해역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 2: 1. (1) (가)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도는 501 점이였으나, 중복된 지도가 94 점 있어서 이를 제외한 수는 407 점이였다.

주 3: 1. (3) (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er du Orientale”는 [동양해]로 분류하였다.

### 3. 결론

이번 일본 측 조사를 반영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18 세기까지의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서는 일본해 해역에 관한 명칭으로서 [일본해], [조선해], [동양해], [중국해]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다.

(2)19 세기 이후 주로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서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국이 쇄국 정책 하에 있어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 세기부터 유럽에 정착되어 왔다”라는 일본 측의 주장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3)또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에 대한 한국 측의 조사는, 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부 지도에 국한된 것으로서 불충분한 조사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는 “[일본해]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 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 “17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서양인은 이 해역에 대해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한국에 관해 언급한 명칭을 사용한 지도가 가장 많았다”라는 한국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4)또한, 한국 측 팸플렛에는 대영 도서관, 프랑스 국립 도서관, 미 의회 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를 조사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주 1). 동 팸플렛에 의하면, 조사한 지도는 전부 763 점으로, 일본과 관련된 호칭이 사용된 지도는 123 점이라고 되어 있다. 이번, 일본

외무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립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만으로도 19세기까지 발행된 지도가 407점 있었으며, 그 중, 일본해가 단독으로 표기된 지도가 249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미루어 보아, 한국 측의 조사는 어느 경우라고 대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의 일부만을 조사한 것으로서 불충분한 조사이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는 한국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 1: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of the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EAST SEA The Name EAST SEA Used for Two Millennia", (Republic of Korea: April 2003)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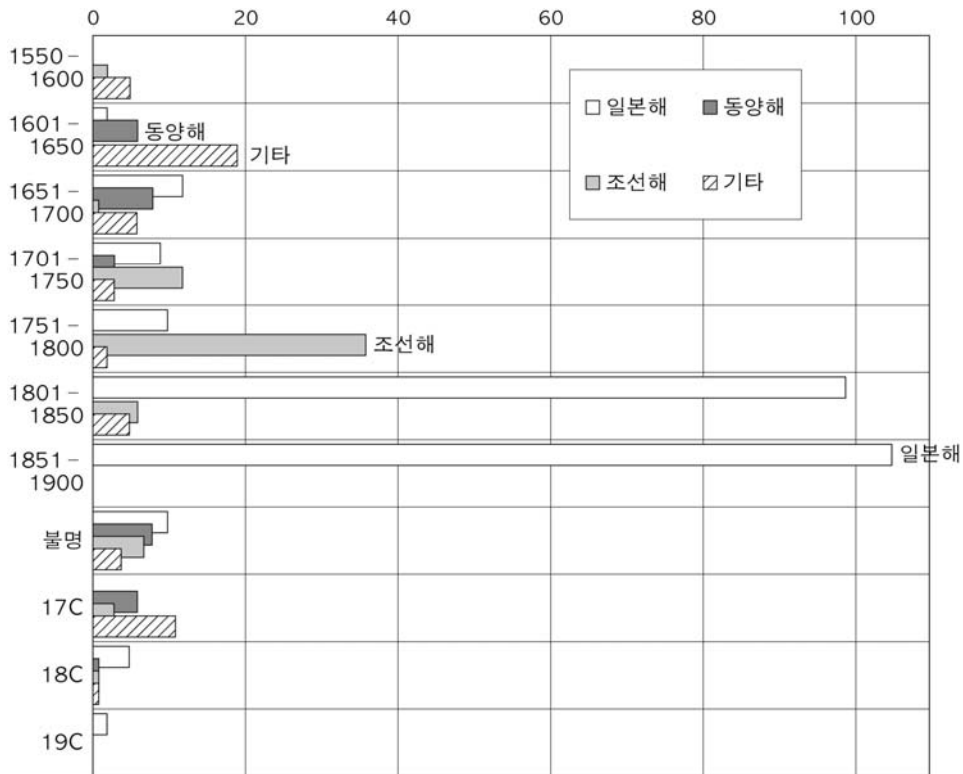
(표 1)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 조사 결과

	1550-1600	1601-1650	1651-1700	1701-1750	1751-1800	1801-1850	1851-1900	불명	17C	18C	19C	합계	비율
일본해	0	2	12	9	10	99	105	10	0	5	2	254	62.0%
동양해	0	6	8	3	0	0	0	8	6	1	0	32	7.8%
조선해	2	0	1	12	36	6	0	7	3	1	0	68	16.6%
기타	5	19	6	3	2	5	0	4	11	1	0	56	13.7%
합계	7	27	27	27	48	110	105	29	20	8	2	410	

(그래프 1)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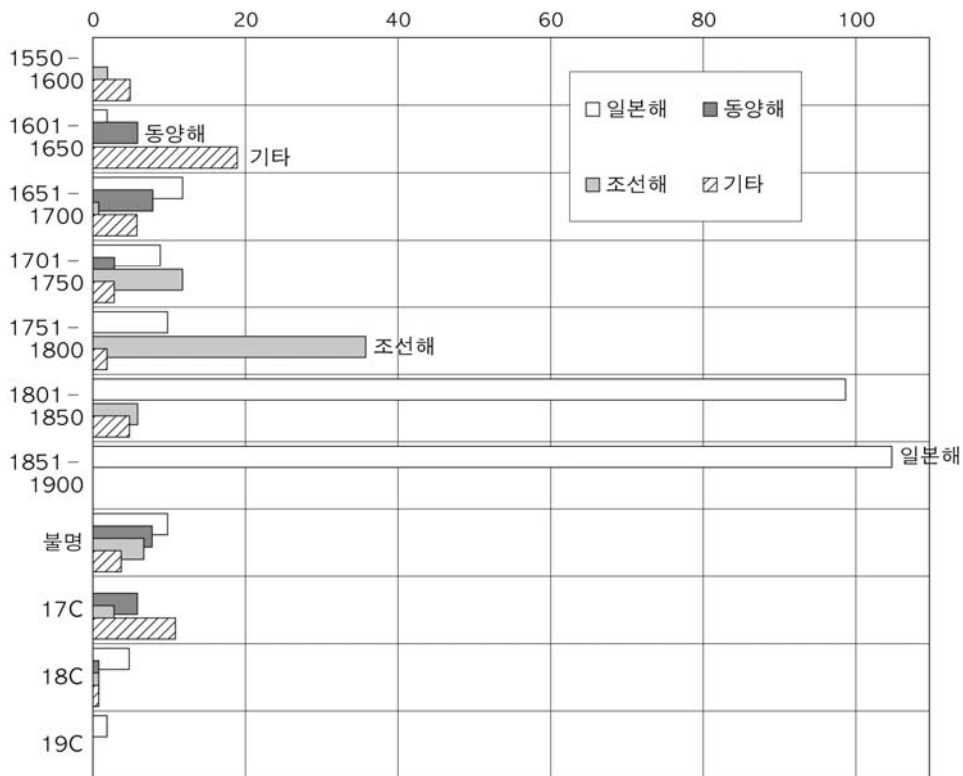
연대별 통계: 프랑스 국립 도서관

	1550-1600	1601-1650	1651-1700	1701-1750	1751-1800	1801-1850	1851-1900	불명	17C	18C	19C	합계	비율
일본해	0	2	12	9	10	99	105	10	0	5	2	254	62.0%
동양해	0	6	8	3	0	0	0	8	6	1	0	32	7.8%
조선해	2	0	1	12	36	6	0	7	3	1	0	68	16.6%
기타	5	19	6	3	2	5	0	4	11	1	0	56	13.7%
합계	7	27	27	27	48	110	105	29	20	8	2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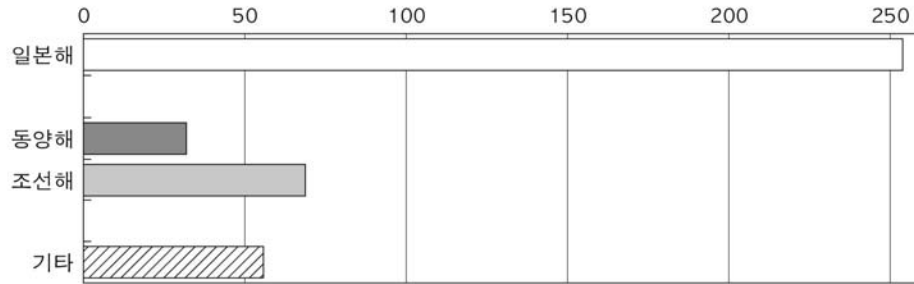
연대별 통계: 프랑스 국립 도서관

	1550-1600	1601-1650	1651-1700	1701-1750	1751-1800	1801-1850	1851-1900	불명	17C	18C	19C	합계	비율
일본해	0	2	12	9	10	99	105	10	0	5	2	254	62.0%
동양해	0	6	8	3	0	0	0	8	6	1	0	32	7.8%
조선해	2	0	1	12	36	6	0	7	3	1	0	68	16.6%
기타	5	19	6	3	2	5	0	4	11	1	0	56	13.7%
합계	7	27	27	27	48	110	105	29	20	8	2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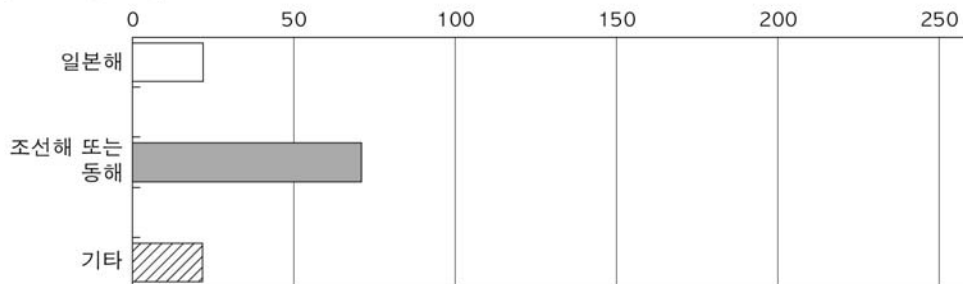


(그래프 2)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 조사 결과 (일본 측 조사와 한국 측 조사와의 비교)

(일본 측 조사)



(한국 측 조사)



주: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 가운데, 발행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지도가 4 점 있었다. 이들은 편의상, 1650 년대로 되어 있는 지도를 17 세기 전반에, 1737-1772 년으로 되어 있는 지도와 18 세기 후반으로 되어 있는 지도를 18 세기 후반으로, 1880 년대로 되어 있는 지도를 19 세기 후반으로 간주하여 집계하였다.

또한, [일본해·동양해]로 표기된 지도 2 점은 일본해에 포함시키고, [동양해·조선해]로 표기된 지도 5 점은 조선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일본해·조선해]로 표기된 지도 3 점에 대해서는 일본해와 조선해에 각각 3 점 씩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그 결과, 표와 그래프에서는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 수가 254 점(249+2+3)이며, 조선해로 표기된 지도 수가 68 점(60+5+3)으로, 전체 지도 수가 410 점(407+3)이 되었다.